

요즈음 잡생각

(주)휴먼드림 양윤원 대표

요즈음은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남자 아이를 데리고 일요일 아침에 여러 가지 볼거리를 보러 다닌다. 인생의 쏠쏠한 재미를 느낀다.

같은 곳을 일방적으로 내가 정하는데 남대문 방화 사건 이후로 서울성곽을 돌고 있다.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대의를 가지고 집에서 생색을 내면서 말이다. 북한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걸어 올라 가야 되는 곳이 많아 맨 처음 북한산을 다녀온 뒤로는 아들놈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해야 했다. 그리고 계속 따라오게 하는 대가로 합의점을 찾았는데 돌아오면서, 집 앞 문방구에서 딱지를 사주는 것이었다.

성곽을 돌다가 느낀 것이지만 서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실은 아들놈도 동의한다. 멀리 보이는 웅장한 북한산과 관악산 그리고 섬으로 보이는 남산 그리고 예쁜 인왕산과 북악산, 낙산…… 일단 멋있다.

지난주에는 북한산성에 갔다가 좀더 옛날을 상상해보게 되었다. 지금처럼 건물도 없고 성곽도 없고 오직 자연만 있다. 빨리 점심식사감을 찾아 집에 돌아가야 한다며 부지런히 산을 쪼다니고 있는 상상이다. 멧돼지 같은 큰 들짐승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산열매라도 구하고 안되면 가다가 강에 들러 물고기라도 잡아가야 하는 의무감도 있다. 오늘 저녁은 선선한 마당에 나와 불피워 놓고 놀았으면 하는데 먹거리가 걱정이야.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아들 놈은 다리 아프다고 집에 가자고 야단이다. 물론 문방구가 더 가고 싶겠지만.

기원전 4000년경 지금의 사막이 사막화가 진행되기 전,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가 에덴동산의

기후에 가장 가깝다고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큰 강가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지 않아서 신분 질서가 없이도 살 수 있던 시대다. 4대 문명이 생기기 전 시대에 지금의 서울의 4대문 안 지역에 살았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다음에 갈 산인 관악산에서 서울성곽 안을 한번 봐야겠다. 기원전 4000년경에 지금의 4대문 안의 풍경은 어땠을까?

북한산에서 내려오면서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하고. 그랬더니 과학자라고 얼른 대답한다.

나도 어릴 적 대답에서 과학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네가 말하는 것은 엔지니어야” 라고 친절한 수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보니 딱지 수집에 중독되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는 산에 가기 싫은 것도 아들녀석과 똑같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해외출장 시 적는 출입국기록지의 직업란에 Businessman이라고 적고 있다. 옛날 나의 꿈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적지 않은 어른들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내 주위의 대부분의 분들이 더 이상 내게 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나마 비즈니스맨이 과학자보다는 에덴동산에 가까운 직업이 아닐까 하고 혼자서 자기만족을 해본다.

지금 나의 현실을 보니 살고 있는 곳이 종로구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이름은 휴먼드림주이다. 하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하는 일은 인터넷 관련 일이다.

앞으로도 아들이 같이 올라 가준다면 일요일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정신을 가다듬어야겠다. 언제까지 딱지가 통하려나?

